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b>보 도 참 고 자 료</b>		
	보도	2017. 9. 8.(금) 조간	배포 2017. 9. 6.(수)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실	김영진 실장(3145-6700), 김봉한 팀장(3145-6710) 오상완 팀장(3145-6711)	

##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⑥⑤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예순다섯번째 금융꿀팁으로,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를 안내하여 드림

<별 첨> 금융꿀팁 200선 - ⑥⑤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행복해 지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사 례	<p>■ <b>(사례 1)</b> 40세 직장인 김OO씨는 5년전에 직장 동료 甲과 같은 증권사에서 같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였다. 최근에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본인 펀드의 수익률이 甲보다 3.5%나 낮은 것을 알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알고보니 클래스*에 따른 비용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본인은 창구에서 C 클래스를 가입하였고, 동료는 수수료·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A-e 클래스에 가입했는데 5년간 누적된 비용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음을 알고 가입 시 미리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였다.</p> <p>* 클래스란 동일한 펀드 내에서 판매수수료의 부과시점, 가입경로 등에 따라 구분되는 펀드의 세부종류를 말하며, 이러한 클래스에 따라 기준가격이나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붙임-펀드클래스별 수수료·보수 특징' 참조)</p>
	<p>■ <b>(사례 2)</b> 펀드투자 베테랑인 가정주부 최OO씨는 최근 신문에서 성과보수 펀드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운용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런 펀드라면 자산운용사가 더 책임감 있게 펀드를 운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비용구조가 복잡하여 성과보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막막하였다.</p>
	<p>■ <b>(사례 3)</b> 펀드로 미래의 재산증식을 설계하고 싶어 하는 사회초년생 서OO씨는 1년 전 중남미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에 가입하였다. 가입당시 펀드정보 포털에서 총비용을 비교해 보고 가장 저렴(1.2%)한 펀드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아 보니 실제로는 1.9%의 보수가 부과된 것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 판매사에 확인해 보고 재간접펀드는 총보수·비용에 더하여 펀드가 편입한 투자대상 펀드의 운용보수 등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p>

☞ 펀드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보수 등 비용도 중요하므로 아래 7가지 비용절감 노하우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7가지

- ① 장기투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
- ② 단기투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가 유리
- ③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판매사별 수수료 비교
- ④ 온라인 가입시 판매보수 저렴
- ⑤ 성과보수 펀드는 전액환매 의무에 유의
- ⑥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체크
- ⑦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유의

#### 꿀 팁

#### ① 장기투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

펀드는 가입자격 및 판매경로 등에 따라 종류(클래스)별로 판매수수료·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목적, 투자기간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펀드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장기투자(예: 3년 이상) 목적이라면 A클래스가 C클래스에 비해 유리합니다. A클래스는 가입시 1% 내외의 1회성 선취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매년 내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C1, C2 등으로 표시되는 CDSC\*클래스는 매년 판매보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비용부담이 커서 A클래스나 C클래스에 비해 비쌀 수도 있으므로 보수 및 수수료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체감식판매보수)

클래스간 비용차이를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클래스별 비용부담 예시'**를 참고하여 보다 쉽게 본인에게 적합한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단기투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가 유리**

단기투자(예: 1년 이내) 목적이라면 C클래스가 A클래스에 비해 유리합니다. C클래스는 판매보수가 A클래스보다 높지만 가입시 선취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한편, 단기투자자는 가입 초기의 판매보수율이 높은 CDSC 클래스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③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비교**

동일한 펀드 클래스라면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판매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직접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일정한 범위(통상 1% 이내) 내에서 판매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펀드라도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본 후 판매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펀드의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kofia.or.kr/>)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온라인 가입시 판매보수 저렴**

가입할 펀드를 정했다면 창구에서는 클린클래스를,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클래스는 창구판매 클래스에 비해 판매보수가 저렴합니다. 온라인 클래스는 클래스명에 **알파벳 'E'나 'S'**를 포함하고 있으며, 클린클래스는 **'G'**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매창구에서 **'투자권유**

불원서'를 작성하는 투자자는 **G클래스에 가입**하여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온라인클래스가 없는 펀드들이 많았으나 '17년 하반기부터 설정되는 모든 증권형 펀드에 **온라인 클래스가 의무화**되므로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는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스스로 가입할 펀드를 결정할 때 유용한 사이트

금융소비자보호 포털 “파인(FINE)”(<http://fine.fss.or.kr/fine/index.jsp>)을 방문하여 “금융상품 → 펀드다모아”를 클릭하면 펀드수익률을 중심으로 원하는 펀드를 쉽고 간편하게 비교하여 검색할 수 있고, 펀드 보수 등이 기재된 투자설명서, 펀드 구성내역, 운용인력정보 등 상세정보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⑤ 성과보수 펀드는 전액환매 의무에 유의

펀드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펀드를 **성과연동 운용보수 펀드**(통칭 성과보수 펀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펀드는 명칭에 ‘성과보수’가 명기되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적용 펀드는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에는 유사한 정률보수 펀드에 비해 약 50%정도 저렴한 기본보수(운용보수)만 내면 되지만, 펀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정률보수 펀드보다 더 높은 비용부담을 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성과보수 펀드는 투자금액의 일부만 환매하는 것은 안되고 전액환매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운용보수만 성과와 연동되고 판매보수는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정률로 부과된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과보수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환매시 기준가격에 따른 성과 보수 부담 사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본인의 목표수익률, 투자기간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⑥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체크

대다수 펀드에서 환매수수료는 **가입후 1~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부과되나, 펀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펀드 가입단계에서부터 투자예상기간과 환매수수료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비교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환매수수료는 **이익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펀드가 있고, **전체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펀드도 있습니다.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산정한다면 실제로는 **더 큰 환매수수료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전에 **환매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⑦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유의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주식·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펀드의 투자비용은 **총보수·비용(판매비용 + 운용비용 + 수탁·사무관리보수 + 기타비용)**으로 결정되지만 **재간접 펀드는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재간접펀드는 **피투자펀드 비용을 합산한 합성 총보수·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합성 총보수·비용은 **투자설명서의 '보수 및 수수료'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특징
A (창구)	선취판매수수료 + 낮은 판매보수
A-e (온라인)	
A-g (창구)	
C (창구)	A클래스에 비해 낮은 판매수수료·보수
C-e (온라인)	
C-g (창구)	
CDSC (C1, C2, C3, C4, ...)	판매수수료 없음 + 높은 판매보수 (판매보수가 매년 체감하나 초기 판매보수 매우 높음)

\* 클래스 명칭 표기는 펀드마다 차이(예 : A-e, AE, Ae 등)가 있을 수 있으며, 투자 설명서상 각 클래스별 가입자격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